

# 화순군, 민·관 합동훈련 통해 재난대응 능력 향상

## 도암면 왕정리 왕정저수지서 비상 대처 훈련 개최 4단계 나눠 저수지 월류·제당 붕괴 등 실전 훈련

화순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화순군 도암면 왕정리 왕정 저수지에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도상 훈련으로 대체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민·관 합동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 훈련을 하게 되었다.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비상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도암면 왕정 저수지에서 각 읍·면 수리시설 관리자와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의·경계·심각·중요 등 4단계로 나누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 월류와 제당 붕괴 등의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단계별 상황 보고 및 관계기관 전파, 주민 대피 및 응급 복구 등의 훈련이 실천처럼 이루어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자연 재난에 대



한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으로 재난이 없는 화순군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장성군 “여름철 맞아 해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장성군이 여름철을 맞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낚거나 또는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된다. 상처에 바닷물이 닿아도 걸릴 수 있어, 피사체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건강한 사람은 구토, 설사, 복통 등을 겪다 차츰 완화되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결핍 환자는 위험할 수 있다.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 괴사 등 패혈성 쇼크 증상을 유발하며 패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50%로 매우 높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먼저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어패류는 5°C 이하 저온 보관, 85°C 이상 가열 섭취하고, 손질 시 흐르는 수돗물로 씻는다. 사용하고 난 조리도구는 끓는 물에 소독해 보관한다.

군 관계자는 “읍면 보건지소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전달했다”며 “마을방송을 활용해 주의사항과 신고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담양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담양군은 지난 8일과 9일 읍·면 신규 복지 공무원 포함 24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교육을 진행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복지상담에서부터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등 사회보장 업무를 행복이음으로 수행하고 있다.

노인이 많은 담양군의 경우 더 많은 군민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상담을 통한 다양한 욕구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 직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민원인의 복지 욕구를 상담으로 파악하고, 공공서비스 신청은 물론 사례관리 연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업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나주시, 빗가람 로제비앙 금연아파트 지정

### 전체 세대 1/2이상 동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금연 제도



나주 혁신도시 빗가람로제비앙 아파트가 나주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구역 홍보·제도에 들어간다.

나주시는 최근 빗가람로제비앙 아파트 정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 정현 임주자대 표회장과 박소준, 김강정, 김철민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거주 세대 1/2이상이 동의할 시 지정한다. 전체 87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530

세대(60.9%) 동의를 얻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 간 제도 기간을 거쳐 금연 지도·단속이 나간다.

나주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알림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지원했다.

제도 기간 이후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이 스스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돼 아파트를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더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곡성군, 농산물 판촉행사

곡성군이 11일까지 농협하나로유통 광주 유통센터에서 농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촉행사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이상철 곡성군수를 비롯한 곡성농협 및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멜론, 블루베리, 체리 등의 특별 판매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상철 군수, 김원술 조판장이 일일판매사원으로 활동해 1시간여 만에 준비한 물건이 완판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곡성멜론, 체리, 블루베리는 공동선별체계를 구축해 품질과 당도가 균일해 대형유통업체 및 유통상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철 군수는 판촉 활동 중 “곡성멜론은 2022년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된 지역의 대표농산물이다. 또한 체리, 블루베리는 우수한 품질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품목으로, 곡성군의 주력 농산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곡성농산물을 소개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에 평생학습센터 개소



“구례군, 2023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센터·마을학교 운영 개소식 - 2023. 6. 구례읍 주민자치센터 -

구례군은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3곳에 평생학습센터를 지난 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구례군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읍면에 설치된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주민수요를 반영한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읍은 민화그리기, 문척면은 제과제빵, 간전면은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평생학습 도시의 목적은 주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군민들이 더욱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